

지자체는 방안 찾고 정부는 지원...이원 시스템 구축해야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7>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보조를 맞춰왔다. 1970년대까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북과 전남이 60여 년 간의 국가불균형 정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구 급감과 그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지역소멸이 범국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소멸위협 특별법 만들어 인구 유출 막아야
고향사랑 기부금제 등 법안도 필요

가적인 화두가 된 시점에서 국가 주도 규모의 경제, 성과 중심의 불균형발전이 갖는 한계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민원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의 주장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 실장은 다극체제의 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신 균형성장전략을 제안했다.

2019년 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전체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비수도권 인구역전 현상이 시작됐으며, 2020년 5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소멸위협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지역이 97곳으로 전체의 92.4% 해당된다. 강원도가 18개 기초단체 중 15개(83.3%), 경북이 23개 기초단체 중 19개(82.6%), 전남이 22개 기초단체 중 18개(81.8%), 전북이 14개 기초단체 중 11개(78.6%) 등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이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소멸위협지수는 65세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되며, 지수가 0.5미만이면 인구소멸위협지역, 0.2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유입을 촉진하며, 기존의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 인구는 지역의 매력도에 따라 결정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일자리, 교

육, 주거, 의료, 문화, 양육환경, 자연 등 다양한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활력증진을 위한 주거지원, 이주정책, 특례적용, 교육제정, 의료시스템 등 ▲경제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활력산업 지원, 민간투자활성화, 국책사업유치, 청년일자리 지원 등 ▲공간혁신 창출을 위한 활성화 구역지원,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안전생활공간 조성, 지역 간 네트워크, 스마트 모빌리티, 공공서비스시설 융복합화, 지역유희시설 활용,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와 보조용 차등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니라 지역 위주의 상향식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대

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소멸위기지역 활성화와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부처별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지자체 간 상향식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뉴딜과 관련 균형발전지표를 충실히 반영, 이를 통해 지역의 공간 구조 역시 중추도시-거점도시-주변도시-농산어촌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형으로 재편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민 실장은 "지자체가 공동대응해 지역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복합적인 지원을 이끌고, 지자체의 제안이 국가가 수용해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등을 제정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은 12일 코로나 19 백신접종센터 방문과 정책 발표, 간담회 등을 펼쳐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재명(맨 왼쪽)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아동돌봄 파주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지켜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낙연(가운데) 전 대표는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경선 최대 승부처' 호남 표심 공략 동시 출격

주말·휴일 하의도 DJ생가 찾아

전남 5개 시·군 광주 양립동 방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가 민주당의 텃밭이자 대선 경선의 향배를 가를 광주·전남 표심 공략을 위해 동시 출격한다.

현지 광역단체장인 이 지사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신안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돌며 지지세 확산을 노리고, 부인 김씨는 이에 앞서 12일부터 전남 5개 시·군과 광주를 도는 2박 3일 간의 강행군에 돌입했다.

12일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따르면 이 지사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한다. 주말인

14일 오전 목포 신항만을 찾아 민선 7기 전남도가 추진 중인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해상풍력 지원부드 및 배후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신안 하의도를 찾는다. 이 지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2009년 8월 18일 서거)를 앞두고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찾아 'DJ 정신 계승' 의지를 다짐하며 호남 표심을 공략한다.

이어 15일에는 전남지역 최대 인구 밀집지인 여수순천을 찾는다.

우선 이날 오전 여수시 우천동 여수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을 방문하고, 여수항 100주년 범시민추진위원회 초청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다. 이어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전남 동부권 당원 간담회를 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인 김씨는 12일부터 영광·함평·담양·곡성·구례

등 전남 5개 시·군과 광주 양립동을 돌며 민심을 훑는 2박 3일 일정의 강행군에 들어갔다. 방문 첫날인 12일 오후 영광으로 가 원불교 발상지인 영산성지를 방문하고 영광 지역민과 원불교 민심을 두드린다. 곧이어 함평으로 이동해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살피고 영광·함평·장성지역 지지자들과 간담회를 한다.

13일에는 담양 송진우 고택과 담양예술창고를 잇따라 찾아 지지자 간담회를 하고, 곡성에서는 핵심 지지자 간담회와 청년 농가 및 농업 경영인들을 만난다. 이어 구례로 이동해 자연드림파크를 살피고 지지자 간담회를 한다. 일정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광주 양립동 평화의 소녀상 헌화, 조아라 기념관 및 최홍중 기념관 방문, 양립동 선교사 묘역 참배 일정을 소화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석열 26.3%·이재명 25.9% 초박빙 접전

리얼미터 조사...이낙연 12.9%

여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초박빙의 승부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윤 전 총장(26.3%)과 이재명 경기지사(25.9%)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며 초박빙 승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두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차이는 불과 0.4% 포인트 차이이다.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 대비 1.2% 포인트 하락했고, 이 지사는 0.4% 포인트 올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3.1% 포인트 하락한 12.9%를 기록해 3위를 기록했다.

이러 최재형 전 감사원장(6.1%),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5.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9%), 유승민 전 의원(2.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3%), 정세균 전 국무총리(2.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2.0%) 순이었다.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여권 대선주자들에 비해 지지율이 높았다. 윤 전 총장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2.1%, 이 지사는 35.9%로 각각 집계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직전인 지난달 26-27일 조사의 2.7% 포인트에서 6.2% 포인트로 벌어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도 43.7% 대 33.0%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23%·윤석열 19%·이낙연 12%

4개 기관 대선 적합도 조사

여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여권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8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주 대비 5% 포인트 하락한 23%를 기록했지만, 선두를 달렸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주 대비 3% 포인트 떨어진 19%로 2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모두 지난 조사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여권 후보인 이낙

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12%를 기록했다.

이러 홍준표(5%), 최재형-안철수(3%), 유승민-추미애(2%), 원희룡-심상정-정세균(1%) 순이었다. 여야 간 양자 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여권 주자들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35%대 33%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